

의미 전체론과 의미 불안정성 문제에 관하여

이병덕 (서울시립대)

【요약문】 현재의 언어철학에서 거의 지배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의미 전체론이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의미 불안정성 문제'이다. 의미 전체론에 의하면, 한 진술의 동일성 조건이 그 진술이 속한 이론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 이론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진술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이 문제에 관한 기존의 해결 방식의 일부를 소개한 후 브랜덤이 그의 책 *Making It Explicit* (1994)에서 제시한 새로운 해결책을 소개하고 이를 옹호한다. 브랜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기존 모델을 거부하고, "실천 속에서의 일종의 협동"으로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제시한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브랜덤이 제시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적극 옹호한다.

【주요어】 의미 전체론, 의미 불안정성 문제, 콰인, 브랜덤, 커뮤니케이션

1. 의미 전체론(meaning holism)은, 포도(Fodor 1987, p. 57)가 적절히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의 언어철학에서 거의 공인된 견해의 위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의미 전체론은 대표적인 현대 영미 철학자들인 콰인(W. V. O. Quine), 셀라스(Wilfrid Sellars), 데이빗슨(Donald Davidson), 데넷(Daniel Dennett), 블락(Ned Block), 브랜덤(Robert Brandom) 등에 의해 옹호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의미 전체론이 직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인 ‘의미 불안정성 문제’(the problem of meaning instability)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 문제에 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브랜덤(1994)이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브랜덤의 제안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먼저 의미 불안정성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다음 왜 브랜덤의 제안이 매력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의미 전체론에 의하면, 한 진술의 의미는 전체 이론(또는 체계)을 구성하는 모든 다른 진술들과의 추론적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다. 따라서 각 진술의 의미는 다른 진술들과 독립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의미 전체론을 옹호하는 논변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본 논문에서 필자의 주 관심은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지칭적 의미론(Referential Semantics)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추론주의 의미론(Inferential Semantics)이다. 따라서 주로 추론주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의미 전체론을 옹호하는 대표적 철학자는 콰인(Quine)이다. 콰인은 그의 논문 ‘경험주의의 두 독단’(Two Dogmas of Empiricism)에서 유명한 ‘두엠-콰인 논제’(the Duhem-Quine thesis)를 주장한다. 이 논제에 따르면, “외계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진술들은 경험의 재판장에 개별적이 아니라 오직 전체 집단으로서 직면한다.”¹⁾ 콰인은 이 논제를 실험적 확증에 관한 프랑스의 물리학자 두엠(Pierre Duhem, 1861-1916)의 이론으로부터 이끌어낸다. 과학 이론의 실험적 확증에 관한 소박한(naive) 모델에 따르면, 과학 이론은 그 이론이 함축하는 실험 예측이 관찰 결과와 부합하면 확증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증된다. 그렇지만 두엠은 과학 이론을 테스트하는 논리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우선 과학적 가설로부터 실험 예측을 도출하기 위해선 보조 가정(auxiliary assumptions) 또는 배경 이론(background theories)이 필요하다. 예컨대, 관찰을 하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전류계(ammeter)와 같은 도구가 필요할 경우, 이 도구와 관련된 보조 가정, 예컨대 광학 이론(optics)이나 전기 이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실험 가설에 ‘어긋나는 데이터’(recalcitrant data)가 관측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어느 정도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보조 가정의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그 가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가설은 독립적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과학 이론들과 관련하여 테스트될 수 있다. 요컨대, 확증은 개별 문장 단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콰인은 이러한 ‘확증 전체론’(confirmation holism)을 전제로 하여 의미

1) "Our statements about the external world face the tribunal of sense experience not individually but only as a corporate body." (Quine 1953, p. 41.)

전체론을 옹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콰인이 가정하는 것은 의미의 검증주의(verificationism)이다. 의미의 검증주의에 의하면, 한 진술의 의미는 그 진술의 확증 관계(confirmation relations)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콰인이 가정하는 검증주의는 논리실증주의자들이 옹호하는 개별적 진술 차원의 검증주의가 아니라 전체론적 검증주의(holistic verificationism)이다. 콰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우리가 한 문장의 의미는 순수하게 그것의 증거로 간주되는 것에 의존한다는 퍼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론적 문장들은 그것들의 증거를 개별 문장들이 아니라 단지 이론의 커다란 덩어리 차원에서 갖는다는 두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론 문장들의 번역의 불확정성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 그런데 이런 달갑지 않은 결론은 의미의 검증 이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가? 물론 아니다. 번역과 모국어의 학습에 기본적인 의미의 종류는 필연적으로 경험적 의미이며 결코 그 이상이 아니다.” (Quine 1968, pp. 80-81.)

“한 문장의 의미는 그것을 옹호하거나 논박하는 관찰에 의해 주어진다. … 증거 관계와 관찰과 이론 사이의 의미론적 관계는 같은 외연을 갖는다. 그러나 의미의 검증주의 이론에 관한 과거의 옹호자들은 개별문장들의 의미에 관해서 너무 부주의하게 말하는 잘못을 범했다. 대부분의 문장들은 개별적으로 관찰 증거에 직면하지 않는다. 문장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 (Quine 1973, p. 38)

비록 전체론적인 형태일지라도, 의미의 검증주의는 현재 더 이상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의미 전체론에 대한 콰인 자신의 논변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렇지만 콰인이 옹호하는 의미 전체론을 추론주의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옹호할 수 있다. 한 주장의 의미는 그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그 주장이 추론적으로 함축하는 바를 포함한다. 그런데 한 주장이 추론적으로 무엇을 함축하는 가는 동반하는(concomitant) 배경 믿음들이 무엇인가에

4 ■ 논리연구 제7집 제2호

의존한다. 그리고 이 동반하는 믿음들은 또한 다른 믿음들과 추론 관계에 의해 뒤얽혀 있다. 따라서 콰인에 의하면, “경험적 유의미성의 단위는 과학 전체이다.”²⁾³⁾

추론주의가 갖는 전체론적 함축은 개념의 소유 조건을 고려해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예컨대, 빨강색을 보고 “이것은 빨강다”라고 말하도록 훈련된 앵무새가 있다고 하자. 이 경우 이 앵무새가 빨강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앵무새가 “이것은 빨강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이것은 색깔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연수가 아니다” 등등이 함축되고, 또한 이 문장은 “이것은 초록색이다”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 등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앵무새가 빨강의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비슷한 예로서 빨강색을 식별하면 “이것은 빨강다”라는 소리를 내는 기계 장치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이 빨강색 식별기는 단지 빨강색의 파장에 반응하여 “이것은 빨강다”는 소리를 내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위의 앵무새의 경우처럼, 이 빨강색 식별기는 빨강이 색의 일종이고, 또한 빨강색은 초록색이 아니다 등등의 빨강색의 개념과 관련된 추론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앵무새의 경우처럼, 이 빨강색 식별기가 빨강색의 개념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셀라스(1963)는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그 개념과 관련된 추론들에 대한 실천적인 숙달(practical mastery)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녹색의 개념을 오로지 이것이 한 요소로 포함된 일단의 개념들을 소유 함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녹색의 개념을 확

2) “The unit of empirical significance is the whole of science.” (Quine 1953, p. 42.)

3) 콰인(1975, pp. 314-315)은 “경험주의의 두 독단”에서 주장된 강한 형태의 확증 전체론을 다음의 두 유보 조항(reservations)을 첨가함으로써 다소 약화시킨다. 첫째, 관찰 진술은 언어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 용어와 달리 주어진 관찰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추정적으로 정당화 된다. 둘째, 과학 속의 개별 이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한 덩어리로(monolithic)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학의 상당 부분이 관찰적 귀결에 관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과학 전체라고 볼 필요는 없다. 필자는 의미 전체론을 이 두 유보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다소 약하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콰인의 주장에 동의한다.

특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진적으로 다양한 대상들에 반응하는 습관들을 획득하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한 중요한 의미에서 이 일단의 개념들 모두를 갖지 못하면, 시공간 속에 있는 물체들의 관찰 가능한 속성들에 관련한 어떤 개념도 갖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Sellars 1963, pp. 44-45.)

다시 말하면, 한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semantic content)은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추론적 역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의 의미론적 내용은 그 개념과 추론적으로 연관된 다른 개념들과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없다. 따라서 추론주의에 의하면, 의미론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전체론적이다.⁴⁾

3. 의미 전체론은 매우 매력적인 이론이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미 불안정성 문제’이다. 의미 전체론에 의하면, 한 진술의 의미는 전체 이론 속의 추론적 역할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론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의미가 변하게 된다. 달리 표현하면, 한 진술의 동일성 조건이 그 진술이 속한 이론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전체 이론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진술의 동일성 조건 역시 대응하여 바뀌게 된다. 같은 문제가 개념의 차원에서도 발생한다. 즉 한 사람의 믿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도 바뀌게 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개는 시끄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믿다가 애완견을 기른 후 개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의 개에 대한 개념은 바뀐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든 점에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의미 전체론은 아무도 동일한 개념을 공유할 수 없다는 믿기 어려운 함축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한 사람의 경우를 통시적으로 살펴봐도, 새로

4) 추론주의 의미론에 의하면 추론적 역할은 단지 형식적 추론(formal inference)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적 추론(material inference) 속에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내용적 추론은 그 추론의 올바름이, 순수하게 그 추론의 논리적 형식에 의해 주어지지 않고, 그 추론에 포함된 개념들의 내용에 의해 주어지는 추론이다. 다음과 같은 추론이 그 대표적 예이다. “만일 A가 B의 서쪽에 있다면, B는 A의 동쪽에 있다.” 이 추론의 올바름은 이 추론에 포함된 ‘서쪽’과 ‘동쪽’이라는 개념 내용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Sellars 1953을 참조할 것.

6 ■ 논리연구 제7집 제2호

운 믿음이 추가될 때마다 전체 믿음 체계가 바뀌므로, 어떤 특정한 개념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의미 전체론은 과학의 진보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과학의 진보에 따라서 물리적 대상들, 예컨대 전자(electron)에 대해 과거에 비해 점점 좀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또한 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믿음이 추가될 때 마다 ‘전자’의 의미가 바뀐다면, 전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증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의미 전체론이 직면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통상적으로 “개는 동물이다”는 문장은 분석적으로 참인 문장이라고 간주된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개들이 동물이 아니라 사실상 외계인이 지구인을 감시하게 위해 보낸 로봇이라고 믿는 과대망상증 환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 과대망상증 환자의 개 개념은 우리의 개 개념과 사뭇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람과 과연 개가 외계인이 보낸 로봇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의미 전체론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유비적으로 한 개인의 차원에서 과거의 믿음과 현재의 믿음 사이의 통시적 이해 가능성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 전체론의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4. 의미 전체론이 직면하는 의미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것은 의미(meaning)가 아니라 지칭(reference)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콰인(Quine)에게 있어서 의미론적으로(semantically) 중요한 것은 의미가 아니라 지칭이다. 즉 의사소통되는 정보는 제시된 주장의 순수하게 외연적인 내용(extensional content)에 의해 구성된다. 따라서 주어진 언어적 표현에 관련된 추론적 관계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그 표현의 지칭체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그 지칭체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콰인의 견해는 철학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큰 입장이다. 우선, 이 입장에 따르면, 엄밀하게 말해서 의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 전체론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 전체론은 의미가 전체 체계에 의해 주어진다든지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적 내용(mental content)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심적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격한 입장을 과연 정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예컨대, 믿음이 없는데 과연 철학적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과연 지칭적 의미론이 실제로 성공적일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선 의미는 심리학적 설명(psychological explanation)을 위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슈퍼맨의 여주인공 로이스 레인(Lois Lane)은 “슈퍼맨은 날 수 있다”는 문장은 믿지만, “클라크 켄트는 날 수 있다”는 문장은 믿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칭(reference)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개별화되는 의미(meaning)가 요청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지칭적 의미론에 의하면, 어떤 언어적 표현이 대상을 지칭하는데 실패하면 무의미해 진다. 그런데 과학 이론에 의해 도입되는 비관찰 용어에 대응하는 이론적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플로지스톤’(phlogiston)이란 용어는 지칭하는 대상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용어는 결코 아니다. 마찬가지로 뉴턴 역학은 더 이상 올바른 이론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뉴턴 역학에 나오는 이론 용어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의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논문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매력적인 해결책의 실마리를 브랜덤(Robert Brandom)이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브랜덤이 그의 책 *Making It Explicit* (1994, 특히 pp. 477-482)에서 제시한 견해를 소개하고 또한 옹호하고자 한다.

5. 먼저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상식적 모델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면, 커뮤니케이션 이전에 단지 전달하는 사람만이 소유하고 있던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전달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덤에 의하면,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식적 모델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랜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상식적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하는 새로운 모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실천 속에서의 일종의 협동”(a kind of cooperation in practice) 또는 “공동 활동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것”(cooperating in a joint activity)⁵⁾이다. 브랜덤이 말하는 “실천 속에서의 협동”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브랜덤(2000, p. 180)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상호 간에 정보를 획득하는 것(extracting information)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한 부족의 마술사(shaman)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곱 번째 신이 방금 일어났다.” 마술사의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아무런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 ‘일곱 번째 신’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곱 번째 신’이 태양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해가 떴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중요한 것은 화자가 어떤 표현을 통해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즉, 아프리카 마법사가 ‘일곱 번째 신’이란 표현을 통해 지칭하는 것이 우리가 ‘해’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대상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일곱 번째 신’이란 마법사의 표현이 해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마법사는 ‘해’라는 우리의 표현이 일곱 번째 신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비록 해에 대한 서로의 개념은 달라도, 이 다른 개념이 동일

5) Brandom 1994, p. 485, p. 479.

한 대상에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각자의 입장에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점을 좀더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두 사람 A와 B 앞에 탁자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리고 A와 B 모두 “내 앞에 탁자가 있다”는 지각적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자. 데이빗슨(1992)에 의하면, 우리가 단지 A만을 고려하면 이 지각적 믿음에서 ‘탁자’가 지칭하는 것이 근접 원인(proximal cause)인지 아니면 원격 원인(distal cause)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근접 원인은 A 앞에 있는 탁자가 야기시킨 A의 근접 자극(proximal stimulus)이고, 원격 원인은 A와 B가 각기 갖고 있는 상이한 근접 자극들의 공통 원인으로서의 탁자이다. A와 B가 각기 갖고 있는 근접 자극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A와 B 사이에서 위의 탁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탁자’가 지칭하는 것이 A와 B가 공유하는 원격 원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데이빗슨은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적절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타자(the second pers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브랜덤은 이러한 데이빗슨의 인과적 삼각작용 논변(the causal triangulation argument)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A와 B가 탁자에 인과적으로 적절히 반응하는 것이 탁자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이런 원초적 능력만으로는 이들이 ‘탁자’의 개념을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2절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그 개념이 관련된 추론들에 대한 실천적인 숙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랜덤(1994, p. 430)은 “신빙성 있는 차별적 반응 성향과 연관된 인과적 삼각관계(causal triangulation)는 다른 개념들과 연관된 추론적 삼각관계(inferential triangulation)에 의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고려를 앞서의 논의에 적용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비록 마법사의 해 개념과 우리의 해 개념은 추론적 함축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인과적 차원에서 동일한 대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 과대망상증 환자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록 그의 개념이 우리와 사뭇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개’라는 표현으로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인처럼 의미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지 않는다 해도, “실천 속에서의 일종의 협동”의 의미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우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은 동물들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예컨대, 꿀벌은 동료 꿀벌들에게 꿀이 있는 방향과 거리를 특정한 형태의 춤을 춤으로써 전달할 수 있다.⁶⁾ 따라서 꿀벌들은, 비록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천 속에서의 일종의 협동”의 의미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간 역시 굳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소리, 표정 그리고 몸짓 등을 이용해 동물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인간은 명제적 내용을 갖는 언어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그 개념과 관련된 추론들에 대한 실천적인 숙달을 필요로 한다. 단순한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런 추론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동물과는 다른 차원의 복잡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셋째, 우리는 공적 언어(public language)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 공적 언어는 각자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사용 규칙에 의해 제약된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정확히 동일한 개념을 공유하는 경우가 드물다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실천 속에서의 협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서로 중첩(overlap)되어 있다. 또한 브랜덤(1994, pp. 119-120)에 의하면, 한 언어적 표현의 추론적 역할은 그 표현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상황들(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t is appropriately applied)과 그 적용의 적절한 귀결들(the consequences of its application)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추론적 역할이다. 그런데 한 표현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상황과 그 적용의 적절한 귀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각자의 사용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Alcock (1989, pp. 199-207)을 참조할 것.

은 “실천 속에서의 협동”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일치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과대망상증 환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사람은 개에 대해서 우리와 사뭇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개’라는 술어가 적용되는 외연에 대해 이 사람과 우리는 일치한다. 그리고 비록 이 사람의 동물 개념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의 동물 개념과 우리의 동물 개념은 같은 외연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개가 갖고 있는 여러 특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 부분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있다. 예컨대, 개는 자주 짖으며, 인간을 잘 따르고, 뼈다귀를 좋아하며, 등등에 대해 동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과대망상증환자의 주장을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비록 각자가 각 표현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소 차이가 나도,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끝으로, 브랜덤처럼 추론적 의미론(inferential semantics)을 주장하는 사람도, 지칭이나 외연과 같은 표상적 어휘(representational locutions)를 사용할 수 있다. 브랜덤(1994, p. 496)이 지적하는 것처럼, “추론주의자의 설명의 요점은 의미론적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표상적 어휘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비판은 단지 그러한 어휘를 의미론적 설명의 순서에서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미 이론에는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다. 하나는 벽돌쌓기 방법(the building-block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전체론적 방법(the holistic method)이다. 벽돌쌓기 방법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문장의 구성 요소들, 즉 고유 명사와 단순한 술어의 의미론적 특색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다음 이를 기반으로 문장의 의미론적 특색을 설명해야 한다. 반면에 전체론적 방법에 의하면, 먼저 문장 차원의 의미론적 특색을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장 구성 요소들의 의미론적 특색을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벽돌쌓기 접근 방식은, 데이빗슨(1977, pp. 220-221)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칭에 대해 비언어적으로 직접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성공적일 수 있다. 그러나 프레게(Frege 1953, §62)가 지적하는 것처럼, 단어들은 오직 문장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만일 ‘백두산’이 백두산을 지칭한다면, 한국어

사용자와 '백두산'이라는 단어, 그리고 백두산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관계를 문장 속에서 '백두산'이라는 단어가 수행하는 역할을 먼저 설명함이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 이 점은 다음을 고려해 보면 보다 분명해 진다. 우리가 한 대상을 인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재확인(reidentific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확인(再確認)은 앞서 관찰된 대상과 지금 관찰된 대상이 동일한 대상이라는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이러한 재인지 판단(recognition judgment)은 동일성 판단에 의해 표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일성 판단과 독립적으로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한 언어적 표현을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칭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재인식하기 위한 암묵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을 재인식할 수 있는 동일성의 기준이 제시될 수 없는 경우 그 언어적 표현이 한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진정한 단칭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론주의자는 지칭이나 외연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런 개념들이 문장의 의미론적 특성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순서에서 원초적인 것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의미를 부정하지 않더라도 좌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지식의 증가에 따라 개념이 바뀐다 해도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점점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6. 결론적으로 브랜덤은 과거 철학자들과 달리 의미 전체론이 함축하는 의미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려 들지 않고, 의미의 불안정성이 성립해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의미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브랜덤의 제안이 기본적으로 올바르며, 좀더 자세히 연구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참고 문헌

- Alcock, John. 1989. *Animal Behavior*. Fourth Edition. Sinauer Associates, Inc. Sunderland, Massachusetts.
- Brandom, Robert. 1994. *Making It Explicit: Reasoning, Representing, and Discursive Prac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Brandom, Robert. 2000. *Articulating Reasons: An Introduction to Inferenti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dson, Donald. 1977. "Reality Without Reference," reprinted in *Inquiries into Truth and Interpretation*. Clarendon Press. Oxford. 1984.
- Davidson, Donald. 1992. "The Second Person," reprinted in *Subjective, Intersubjective, Objective*. Clarendon Press. Oxford. 2001.
- Dummett, Michael. 1981. *Frege: Philosophy of Language*. Secon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odor, Jerry. 1987. *Psychosemantics*. A Bradford Book. The MIT Press.
- Frege, Gottlob. 1953. *The Foundations of Arithmetic*. English Translation by J. L. Austin. Second Editi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80.
- Putnam, Hilary. 1990. "Meaning Holism," in *Realism with a Human Face*, edited by James Conant. Harvard University Press.
- Quine, W. V. O. 1953. "Two dogmas of empiricism," in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Second Edition. 1961.
- Quine, W. V. O. 1969. "Epistemology Naturalized," in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 Quine, W. V. O. 1973. *The Roots of Reference*. Open Court Publishing Co. La Salle, Illinois.
- Quine, W. V. O. 1975. "On Empirically Equivalent Systems of the World," *Erkenntnis* 9, pp. 313-328.
- Sellars, Wilfrid. 1953. "Inference and Meaning," reprinted in *Pure*

14 ■ 논리연구 제7집 제2호

Pragmatics and Possible Worlds: the Early Essays of Wilfrid Sellars, edited and introduced by Jeffrey F. Sicha. Ridgeview Publishing Company. 1980.

Sellars, Wilfrid. 1963.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in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Routledge & Kegan Paul. Reprinted in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with an Introduction by Richard Rorty and a Study Guide by Robert Brandom,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